

# 위장질환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아름답고 수려한 경관도 배를 주리고서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법이다.

그런데 ‘食’ 후에 제대로 소화를 시켜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처럼 위장에 문제가 발생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위장장애라 일컫는다. 특히 위장의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중년기에는 위장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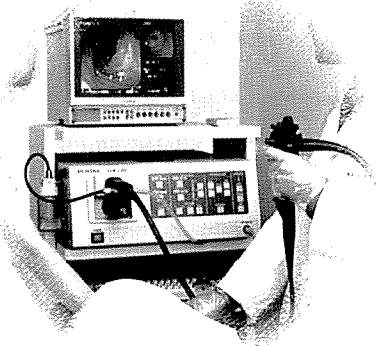
## 1. 위염

위염은 소화기 질환으로 자주 거론될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친숙한 병명이나, 정확히 위염을 정의하고 진단하기는 힘들다. 일반인들은 막연히 배가 거북하고 아프면서, 트림 또는 신물이 올라올 때를 위염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내시경검사와 필요시에는 조직검사까지 요할 때가 많다.

위염은 크게 발생 시기에 따라 갑자기 발생한 급성위염과 오랜 기간 서서히 발생한 만성위염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발생원인으로는 술, 약제, 기계적 자극, 위의 식도역류, 방사선조사, 위의 허혈성변화, 전신질환, 감염 이외에도 스트레스 등이 있을 수 있다. 최근에는 위에서 발견되는 헬리코박터라균이 위염과 궤양

을 일으키는 원인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원인에 대한 예방법을 알아보면 술에 의한 위염은 술을 끊거나 음주량을 절대적으로 줄여야 한다.



약제에 의한 위염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제,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이 자주 복용하는 아스피린이나 진통제, 철분제 등이 원인이다.

따라서 진통제 등의 복용을 되도록 삼가고, 꼭 필요할 경우에는 공복이나 취침전은 피하며, 식후에 다량의 물과 같이 복용함으로써 위장장애나 위염을 피할 수 있다. 철분제제는 식사와 같이 복용하여 위장관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또한 장기 복용할 때는 담당의사와 의논하여 약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또, 스트레스도 위염을 유발하므로 적당히 생활의 여유를 갖고

리듬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 1) 급성위염

비교적 짧은 시간에 나타나는 위점막 염증을 말한다.

입으로는 위낙 여러 가지 이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이 위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주된 증상은 윗배가 아프거나 메스껍고 토하는 증세가 올 수 있다. 피를 토하거나 혈변이 나오기도 한다. 출혈이 심하면 빈혈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고혈압, 중풍 등으로 아스피린을 오랫동안 먹는 사람은 출혈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부식성 약물이나 자극성 음식을 섭취한 지 얼마 되지 않으면 구토를 일으키고 위세척 등을 실시하지만,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경우 설사로 배설시키는 것이 좋다. 가급적 하루 이틀을 절식시키고 미음이나 죽과 같이 유동성 음식부터 조금씩 투여하여야 한다. 치료약물로서는 제산제, 위산분비억제제 등이 사용된다.

### 2) 만성위염

염증이 오래되어 위의 점막이 오프라들거나 점막 세포가 변하는 경우를 만성 위염이라고 한다. 이런 변화가 오래 진행되면 일부는 위암이 될 수도 있다.

급성위염을 앓고 난 후에 오는 경우가 많다.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고 자극적인 음식과 향신료,

커피, 술, 담배 등을 즐기는 것도 원인이 된다. 유전적 요인과 기타 질병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증상은 급성위염과 비슷하나 대체로 그 정도가 약하고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 특징이다.

속쓰림, 신트림, 헛구역 등의 증상이 가장 흔하다. 위축성 위염이 위의 하부에 국한되어 있고 증세가 가벼운 경우에는 공복시 위가 아프고 속이 쓰리며 트림이 나는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런 증세는 젊은 사람들에게 많다.

고령자의 경우는 위축성 위염이 위의 상부에까지 퍼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위가 메스거리는 느낌을 갖기도 하지만 아무런 증세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원인 인자를 제거해야 하는데 과음, 과식, 흡연 등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식이요법으로는 가능한 한 위에 자극이 적은 음식을 사용하며, 제산제, 소화효소제, 위점막 보호제, 위 운동 촉진제 등의 사용이 필요할 때가 많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신경안정제의 투여가 필요한 때도 있다. 폭음, 폭식을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며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하는 등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 2. 위궤양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이나 펩신 등에 의해 위의 점막이 헐거나 괴사하여 손상된 것으로, 소화성 궤양으로도 불린다.

산성위액의 과잉분비와 조직저항의 약화가 주원인이다. 위궤양은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는 스트레스가 위산의 분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위장점막의 방어력을 저하시켜 궤양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환자 중에 정서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고 불안이나 긴장 등 정신적인 갈등이 있을 때 재발이나 합병증이 잘 생긴다는 점이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

**흔한 악성질환이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고  
치료효과가 좋기 때문에  
정기적인 위검사와  
40~50대의 사람이라면  
조기진단을 위해서  
1년에 1회 정도의  
내시경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공복 시의 통증이 대표적인 예이다. 명치 밑이나 상복부, 또는 배꼽 주위를 중심으로 쓰리고 아픈 증세가 나타나며, 때로는 밤에 심한 통증으로 잠을 깨게 될 때도 있다. 구역질을 하기도 하고 피를 토하거나 변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한다. 병이 진행되어 위벽에 구멍이 뚫리면 상복부가 딱딱해지며 격심한 통증이 일어난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심한 복막염을 일으켜 위험한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최근에는 우수한 약물들이 개발되어 쉽고 빠르게 치료할 수 있게 됐는데, 약 8주 정도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궤양은 위암과 구별이 잘 되지 않으므로 1~2개월 치료 후 다시 내시경 검사를 해서 완치 여부를 확인하고, 궤양이 남아 있으면 다시

조직검사를 해야 한다. 급성 복막염이 발생한 경우, 유문 협착이나 폐색이 진행되어 음식물이 통과하지 못하고 구토를 일으키는 경우, 약물치료로 완치가 되지 않거나 악성궤양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치유되었던 궤양이 자주 재발하여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며 알코올과 커피를 삼간다. 정신과 육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3. 위 암

위암은 위에 흑과 궤양이 발생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한국의 통계를 보면 남여를 합하여 악성종양 중 위암이 제일 많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악성질환이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고 진행위암이라도 적절히 치료하면 치료효과가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야 한다.

증상은 위염 및 소화성 궤양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암이 진행된 경우에 체중감소, 명치에서 굳은 덩어리 등이 만져질 수 있으며 암이 어느 부위에 얼마나 크게 있느냐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초기에는 무증상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인 위검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40~50대의 사람이라면 조기진단을 위해서 1년에 1회 정도의 내시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전훈재 · 고대안암병원 소화기내과 교수